

판소리 레미제라블
구구선 사람들
입과손스튜디오

들어가는 글

창작 판소리의 바이블 <전통 판소리 다섯바탕>, 그 너머를 그리며
거의 모든 판소리 창작자들에게는 씹어도 씹어도 단물이 나는 '바이블'이 존재한다. 심청가, 춘향가, 수궁가, 적벽가, 흥보가. 일명 '오바탕'으로 불리는 다섯 개의 전통 판소리다. 러닝 타임이 최소 두시간에서 최대 열세시간에 달하는 '오바탕'은 그 안에 담긴 내용과 시대적 효용을 별개로 두고서도 이 시대를 사는 판소리 창작자들에게 백과사전 역할을 해낸다. 그 안에는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화법과 기술, 여전히 유효한 시선과 노하우, 그리고 미처 헤아릴 수 없이 방대한 양의 레퍼런스가 담겨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바이블'은 누가, 어떻게 만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제작한 작품이 바로 <판소리 레미제라블 - 구구선 사람들>이다.

여러 세대, 여러 소리꾼의 '더늠'으로 완성된 완창 판소리

'전통 판소리는 여러 세대, 여러 소리꾼(창작자)의 더늠(더 넣은 소리)과 토막소리(긴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소리)들을 이어 붙여 만든 하나의 작품'이라는 가설을 모티브로 두고, 입과손스튜디오(이하 '입과손')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을 판소리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공동창작 #리서치 #토막소리 #더늠 을 키워드로 총 3개의 토막소리를 발표하고, 제작 과정에서 발견한 #눈대목 들을 모아 하나의 이야기로 결합해 '완창'을 이루는 형식을 최종 목표로 했다.

총 3년 간의 제작 기간을 거쳐 만든 세 편의 토막소리 작품들(2019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선정)은 입과손 소리꾼과 교수들의 공동창작으로 제작되었고, 『레미제라블』안에 담긴 주요 인물들을 리서치하는 과정으로서 역할을 했다. 그 안에서 개발된 장면과 소리들은 완창이 되는 과정에 요긴하게 활용되었으며, 여러 개의 작은 이야기가 하나의 긴 서사가 되는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토막소리 작품의 인물과 사건을 잇는 하나의 세계관 '구구선'

서로 다른 인물과 사건으로 구성된 토막소리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세계관이 필요했다. 입과손은 그 방안으로 '시대를 특정하지 않은 한 척의 배'를 떠올렸다. '세상은 한 척의 배'라는 컨셉을 통해 입과손은 '불쌍한 사람들'의 존재가 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개인의 비참한 삶이 결코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한 사회 안에 여전히 비참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그 사회를 구성하는 이들은 모두 그 삶의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만한다는 것이 이 작품의 주요 메시지다. 어떤 순간에는 친절로, 관심으로, 연대로 매번 다른 모습일 그 '노력'이 더 많은 이들의 삶에 스며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작품 속에서 갈 곳을 잃고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사람들의 삶은 버티기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더 굳건분투하지만 기약 없는 '표류' 속에서 모두가 불안하다. 그렇게 정처없이 떠가는 배 위에서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아무도 온전하지 않고, 그렇기에 불쌍한 것이다. '불쌍한 사람들'의 영역을 가난한 자, 고아, 기회를 박탈당한 젊은이에게 한정하지 않고 '한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부조리한 세상 속에 사는 사람 모두가 불쌍하다는 메시지를 전해보고자 했다.

늘 100에 닿지 못하고 99에 그치고 마는 모자란 세상, 시공간을 초월해 단 한번도 사라진 적 없는 '불쌍한 사람들'... 구구선 사람들의 삶은 전쟁과 혁명, 역병과 가난을 지속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

입과손은 무대 위 한 척의 배 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비춰보고자 한다. 우리가 탄 '세상'은 지금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고 있을까?

목 차

Part 1. 판소리 레미제라블 - 구구선 사람들

작업 노트	14
토막소리 시리즈 1 <팡틴>	16
토막소리 시리즈 2 <마리우스>	20
토막소리 시리즈 3 <가브로슈>	24
Bonus Track	28
<판소리 레미제라블 - 구구선 사람들>	30
제작 연보	33

Part 2. 소리꾼, 빅토르 위고를 만나다

빅토르 위고와 함께한 3년의 시간들	36
2023년 4월 대한민국, '지금'을 사는 소리꾼의 시선에서	
다시 쓴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	42
구구선 사람들 MAIN THEME	45

Part 3. 입과손스튜디오

대표 레퍼토리	52
주요 연혁	53
<완창판소리프로젝트 1_동초제 심청가>	55
<완창판소리프로젝트 2_강산제 수궁가>	57
<19호실로 가다>	59
<판소리 동화시리즈_안데르센>	61
Contact	62

Part 1.

판소리 레미제라블

- 구구선 사람들

시놉시스

바다 한 가운데 구형(球形)의 검은 배가 한 척 떠 있다.

그 배는 하나의 세상이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유토피아 '물'을 그리며 긴 시간 표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허나 그들 모두 물에 대한 열망을 잊을 정도로 힘든 나날을 마주한다.

빵을 하나 훔친 죄로 19년 감옥 생활을 하는 장씨, 미혼모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방미영, 장래보다 혁명이 우선이 된 청년 백군, 거리에서 물건을 팔아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아이 가열찬까지...

나날이 커지는 계급 간의 갈등과 가난, 그리고 계속해서 이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통치 세력의 횡포로 사람들의 삶은 서서히 옥죄인다. 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구구선 사람들은 통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혁명을 준비하는데...

공연 개요

- 공연명 : 판소리 레미제라블 구구선 사람들
- 원안 : 빅토르 위고(Victor Hugo) 『레미제라블(Les Miserables)』
- 공연기간 : 2023년 4월 8일(토) -22일(토) 평일 8시, 주말 3시 (월요일 공연 없음)
- 공연장소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 공연시간 : 100분(인터미션 없음)
- 관람등급 : 11세 이상
- 가격 : 비지정석 정가 35,000원
- 기획 : 두산아트센터, 입과손스튜디오
- 제작 : 입과손스튜디오
- 홍보 : 라브(LAABE)
- 주최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입과손스튜디오 × 두산아트센터

창작 및 제작진

작/연출 **입과손스튜디오**

음악 **입과손스튜디오, 김홍갑, 이유준**

출연진 **이승희**(소리꾼), **김홍식**(고수), **김소진**(소리꾼/가열찬 역),

백종승(배우/백군 역), **이향하**(고수/키보드), **김홍갑**(기타), **이유준**(드럼)

프로듀서 **유현진, 김연정**

무대감독 **김지명**

무대디자인 **남경식**

조명디자인 **신동선**

음향디자인 **장태순**

공동기획

두산아트센터

센터장 **강석란**

공연기획 **김요안 남윤일 신가은 이정연**

전시기획 **최희승 장혜정 박소연 김하은**

교육기획 **박찬종 정다운**

홍보마케팅 **강소라 강소정 정소리 이지혜**

티켓 **이한별 최시윤**

사무 **박세연**

기술총괄 **신승욱**

음향 **류호성**

조명 **황동철 왕은지**

무대 **강현후 민지홍**

하우스 **권지은 유지민**



이승희

입과손스튜디오 소리꾼, DAC Artist

대표작 <몽중인나는 춘향이 아니라>, <동초제 심청가-몽중인>, <여보세요> 등

김홍식

입과손스튜디오 교수

대표작 <완창판소리프로젝트1_동초제 심청가>, <판소리동화시리즈_안데르센>, <역척가>, <사천가> 등



백종승

배우, 제12연어연극스튜디오 소속

대표작 <대학과 연극>, <웰킨>, <도쿄노트-인터내셔널 버전>, <엑소더스>, <그들의 적> 등



김소진

입과손스튜디오 소리꾼

대표작 <완창판소리프로젝트2_강산제 수궁가>, <19호실로 가다>, <추물/살인>, <마당을 나온 암탉> 등

이향하

입과손스튜디오 교수 및 대표

대표작 <긴긴밤>, <여보세요>, <동초제 춘향가-몽중인>, <몽중인나는 춘향이 아니라>, <역척가> 등



김홍갑(홍갑)

기타리스트, 싱어송라이터

앨범 [홍갑 1], [홍갑 2], [꿈의 편집], [보이는 것들] 등

이유준

드러머, 밴드 후맵네 멤버

앨범 [끝이 없네 끝이 없어 답이 없네 답이 없어]



소리꾼 이승희, 고수 김홍식



개미굴밴드

(왼쪽부터 시계방향)

이유준(드럼), 이향하(키보드), 홍갑(기타), 김소진(가열찬), 백종승(백군)

토막소리부터 완창판소리까지 원작의 인물을 중심으로, 토막소리 시리즈

빅토르 위고의 원안 『레미제라블』을 바탕으로 제작된 입과손의 <판소리 레미제라블 - 구구선 사람들>(이하 구구선 사람들)은 총 세 개의 토막소리(소극장형 작은 이야기)를 하나로 엮은 완창형 판소리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2019~2022년)을 통해 총 3년의 제작 기간 동안 만들어진 세 편의 토막소리는 원작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여자(팡틴), 청년(마리우스), 아이(가브로슈)를 대표하는 인물의 삶을 주제 삼아 각기 다른 양식으로 완성했다.

판소리 레미제라블 토막소리 시리즈 1 <팡틴>

탈춤의 과장을 적용한 판소리 with 탈꾼 박인선

판소리 레미제라블 토막소리 시리즈 2 <마리우스>

음악이 서사가 되는 판소리 with 음악그룹 상자루

판소리 레미제라블 토막소리 시리즈 3 <가브로슈>

무대 위 사라지지 않는 존재 만들기 with 인형작가 이지형

토막소리 시리즈 1 <팡틴>

제1과장 가난한 여자 불쌍하다

혈연의 상실, 재정 지원의 상실, 교육 기회의 상실, 원치 않은 임신, 실업, 임금하락, 질병, 폭력의 피해, 교활하고 허술한 법의 문제, 현대 사회 과학자들은 이것들이 빈곤의 사슬을 만드는 데 크게 작용한다고 얘기한다. 여기, 그것들이 모두 작정하고 만든 빈곤의 결정체 '팡틴'이 있다.

제2과장 가난한데 아름다운 여자 불쌍하다

평범하다.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는 보통의 상태'를 뜻한다. 가난한데 아름답기까지하여 평범하지 못한 인물 '팡틴'은 사회가 만들어놓은 '집단'에 속하지 못한 채 가난과 멸시의 굴레를 벗지 못한다.

제3과장 가난한데 아름답고 아이까지 있는 여자 불쌍하다

팡틴의 엄마 - 팡틴 - 팡틴의 딸로 이어지는 가난과 아름다움이라는 낙인은 그들의 삶 전반에 질게 새겨져 있다. 아름다움조차 도울 수 없는 그들의 비참한 운명은 불쌍하기만 한데...



하이라이트 영상

창작 및 제작진

작/연출/음악 **입과손스튜디오**

탈춤구성 **박인선**

소리꾼 **이승희**

고수 **김홍식**

탈꾼 **박인선**

고수의 목소리 **김소진**

음악 **이향하, 신승태**

무대감독 **김지명**

무대디자인 **남경식**

조명디자인 **문동민**

음향디자인 **장태순**

탈디자인 **이지형**

영상감독 **백종관**

메이크업 **유지희**

헤어 **김은옥**

조연출 **김소라**

프로듀서 **유현진**

제작 **입과손스튜디오**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홍보/제작협력 **따따지온라인극장 (WWG Online Theater)**

작업 노트

<팡틴>은 기존 판소리의 서사 구조를 탈피해 탈춤의 ‘과장(연극의 막과 유사한 개념)’ 형식으로 꾸민 작품이다. 주요 실험 목표는 쓰기 과정의 ‘완성된 서사구조 탈피’와 표현 과정의 ‘탈꾼 협업(탈 바꾸기 작업)’, 고수의 입장에서 ‘새로운 룰과 역할 찾기’였다. 이를 통해 입과손은 분절된 서사로도 하나의 판이 형성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 결과 기존과는 아주 다른 색채의 판소리 <팡틴>이 완성되었다.

원작에 등장하는 인물 ‘팡틴’은 탈꾼이 맡고, 소리꾼은 그가 겪은 주요 사건을 따라 해설을 하거나 다른 인물을 연기한다. 여기에 고수의 또 다른 추임새 역할, ‘고수의 목소리(소리꾼 김소진)’를 더했다. 소리꾼의 시선과 이야기의 이면을 일반적인 추임새가 아닌 직접적인 언어와 소리 로 그렸다.

작품은 총 3개의 과장으로 구성했다. 탈꾼은 자신의 마음이나 처지를 숨길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여자 ‘팡틴’을 탈을 벗고 연기했고, 탈춤 특유의 움직임으로 그가 아이에서 성인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표현한다. 특히, 소리꾼이 사건을 말하거나, 다른 인물을 연기하는 동안에도 무대 위에서 사라지지 않는 방식을 채택해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는 존재를 대변하였다.

고수는 일반적인 소리꾼-고수 간의 역할과 형식을 탈피했다. 소리꾼의 옆이 아닌 관객의 맞은편에서 소리북 연주를 하고, 추임새 외에도 ‘고수의 목소리’를 통해 판의 흐름을 멈추거나, 다른 이야기로 전환하는 등 판의 흐름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했다.

토막소리 시리즈 2 <마리우스>

날로 치솟는 물가와 별개로 도무지 오르지 않는 임금 때문에 사람들의 형편은 나날이 힘겨워졌고, 집도 없고 뺨도 없고 땅도 없는 이른바 무산 계급은 ‘이대로 굶어 죽느니, 마지막 힘을 다해 싸워보겠노라’ 다짐했다. 다소 서툴고 대책 없는 모양이었지만, 초반에는 꿈쩍도 않던 공장장들도 여기저기 들고일어나는 이들의 움직임에 최저 임금 협상을 약속하는 듯 했는데... 예고에 없던 관군의 무력진압으로 협상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많은 것들이 이전보다 못하게 되었다.

한편, 도시 한 켠에 자리잡은 한 카페가 있었으니, 이름은 엔트홀, 일명 개미굴이라고들 하는데. 매일 밤 흥겨운 노래가 끊이지 않는 이곳은 겉으로는 한가로운 주점이지만, 내부 깊숙한 곳에서는 은밀하고 비장한 움직임으로 가득했다.

몇몇의 젊은 노동자와 다수의 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이 비밀결사단은 이름하여 ‘민중의 벼’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조직의 리더 격인 핵심 멤버 'F4', 권군, 남군, 조군, 신군의 활약은 대단했다.

시민들의 무언의 지지와 '민중의 벼'의 특사 가브로슈와 마영감의 지원에 힘입어 개미굴 근처에 바리케이드를 쌓으며 결전의 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유난히 따뜻한 봄 햇살에 감수성 풍부한 신군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창작 및 제작진

작/연출 **입과손스튜디오**

음악 **입과손스튜디오, 상자루**

소리꾼 **이승희, 김소진**

민요소리꾼 **신승태**

고수 **김홍식, 이향하**

연주 **권효창, 남성훈, 조성윤**

무대감독 **김지명**

조명감독 **문동민**

음향감독 **장태순**

촬영 **김소라**

프로듀서 **유현진**

제작 **입과손스튜디오**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홍보/제작협력 **따따지온라인극장 (WWG Online Theater)**

작업노트

<마리우스>는 ‘판소리 서사와 소리를 분리하는 실험’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더불어 ‘민요로 장면 만들기’에 대한 실험이기도 하다. 이는 향후에 진행된 <판소리 레미제라블 - 구구선 사람들>의 청년(백군 역), 아이(가열찬 역)의 서사에 요긴하게 활용되었다. 작품에서 활용한 민요들은 대부분 개사하여 장면에 녹여냈고, 인물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상황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주로 활용했다. 감정이나 은유적 표현이 많은 민요를 사용함으로써 입과손은 이야기 속에서 민요가 정서를 만들고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무대 위에는 두 명의 소리꾼이 서술자로 이야기를 끌어가고, 중심 인물 ‘마리우스(신승태)’와 ‘그의 벗들(상자루)’이 민요와 연주로 소리를 맡았다. 자연스레 작품은 액자식 구조를 띄며 일반적으로 소리판에서 유일한 화자이자 등장인물인 소리꾼은 해당 작품에서 장면과 장면을 잇고, 이야기의 방향을 만들어 가는 ‘작가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소리꾼이 관찰자적 시점을 취하면서, 이야기는 조금 더 실제적인 형태를 띠고, 작가로서 소리꾼의 견해를 명확하게 엿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한편 고수의 음악적 역할도 분리하였는데, 소리꾼의 소리는 고수(소리북)가, 민요소리꾼 장면은 연주단(상자루)이 이면을 그려냈다. 고수가 장단과 호흡으로 소리꾼의 소리를 지지하거나 이면을 그리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연주단은 멜로디와 주법을 통해 인물의 감정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 둘 모두를 아울러야 할 때에는 리듬이나 음울을 최소화한 전자 사운드를 활용해 각 파트의 고유성이 잘 드러나면서도 하나의 음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토막소리 시리즈 3 <가브로슈>

돈밖에 모르는 부모 밑에서 어린 나이에 굶은 일을 도맡던 아홉살 열찬은 원양 어선에 태워 멸치 똥이나 따게 하자는 부모의 얘기를 엿듣고 자신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후, 바로 집을 나와 거리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는데 변화의 물결로 가득한 거리에도 어린 아이를 위한 일자리나 쉴 곳이라고는 보이질 않는다. 그럼에도 타고난 긍정적 성격으로 어찌어찌 살아가던 열찬의 인생은 의열단원의 연설을 듣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거리에 버려진 커다랗고 낫선 인형 ‘세바스찬’을 우연히 만나 형제 삼고, 곳곳하게 살아가는 열찬의 삶은 탄생의 목적부터 마지막까지 불쌍하기만 하다.



창작 및 제작진

작/연출 입과손스튜디오

소리꾼 김소진

고수 이향하, 김홍식

인형디자이너 이지형

프로듀서 유현진

무대감독 김지명

음향감독 장태순

조명감독 문동민

주최 입과손스튜디오, 신촌문화발전소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업노트

원작에서 거리를 떠도는 아이로 등장하는 '가브로슈'를 한국의 개화기 속 인물 '가열찬'으로 각색한 토막소리 마지막 편이다. 노동자 계급의 불안한 삶과 부당한 사회 처우에 대한 이야기의 기조는 고스란히 담고. 급변하는 사회 속 민중의 삶이 불안정했던 개항기 한국의 배경으로 재구성했다. 또한, 원작의 시민혁명은 강대국들의 이권 다툼 속에서 조선의 자립을 이루고자 했던 의병들의 이야기로 가져왔다.

해당 작품은 '무대 위 사라지지 않는 존재 만들기'를 목표로 했는데, 여러 고민 끝에 '사라지지 않는 존재' 역할은 인형이 맡게 되었다. 이때 협업한 인형작가 이지형은 앉거나 덮는 등 이동이 가능하며, 무대 위에서 쉽게 조립이 가능한 인형을 창작해왔다. 외로운 아이의 벗이 된 '버려진 인형'은 소리꾼의 손을 통해 작은 천 몽터기에서 의자로, 의자에서 버려진 인형으로 변신한다. 떠돌이 아이에서 최연소 꼬마 혁명가가 되는 가열찬의 서사를 쌓아올리는 과정에서, 인형은 주인공의 안타까운 처지와 미처 다 자라지 못한 내면을 그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고수는 <가브로슈> 안에서 등장인물과 연주자로서의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 어쿠스틱 악기 중심으로 구성된 연주 세트는 고법을 중심으로 두고 효과음에서 반주, 연주곡까지 넓은 스펙트럼의 사운드를 소화해 내고 있다.

Bonus Track

<판소리 레미제라블 - 구구선 사람들>

완창 판소리 공연 기간동안

입과손의 토막소리 시리즈 작품 전편을

따따지온라인극장에서 재상영합니다.

좋은 관람 되시길 바랍니다.

1. <팡틴>, 1:19:29
2. <마리우스>, 1:06:55
3. <가브로슈>, 1:10:19



따따지
온라인
극장

따따지온라인극장은 극장 너머의 극장입니다.

공연을 위한 영상 플랫폼의 필요로 시작한 이 극장은 앞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바이러스와 다양한 환경문제, 사회적 격리조치로부터 예술이 조금 더자유로울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하나 우리는 이러한 대안공간이 극장의 의미를 퇴색하는 길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실존하는 극장과 더불어 공연을 보는 새로운 방법이 되길 바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아이디어, 온라인 공연의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 극장장 앙투헤르



<판소리 레미제라블 - 구구선 사람들>

다시 만난 세계, 완창 판소리

완창형 작품 <판소리 레미제라블 - 구구선 사람들>은 세 편의 토막소리 작품에서 개발한 소리와 이야기를 따와 엮었다. 이러한 작업 방식은 앞서 말했듯 서로 다른 시기에 여러 작가(소리꾼)들이 만든 토막소리가 모여 하나의 긴 서사가 되는 '전통 판소리 창작 과정'에 착안하였다.

이러한 창작 방식은 인물들의 서사에 깊이를 더하고, 작품의 양식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다. 토막소리를 통해 전사를 만든 등장인물(팡틴-방미영, 마리우스-백균, 가브로슈-가열찬)들은 원작의 주인공(장발장-장씨)의 서사가 판 위에서 더욱 다채롭게 진행되는 데 힘을 실고 있다.

이는 새로운 판소리 사설 만들기 방식이며, '서로 다른 세계'를 하나로 잇는 작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키(key)가 된 것은 바로 '장발장(장씨)'였다. 각 토막소리 시리즈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각기 다른 배경과 서사를 연결하는 데 '장씨'의 일대는 중요한 틀이 되어 준다. 그의 일대를 따라 등장하는 '불쌍한 사람들(Les Miserables)'의 모습은 역으로 그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과 내적 성장을 반추한다. 때문에 이야기는 주인공 '장씨'의 서사를 넘어 여러 인물들의 삶이 모여 이룬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

낮선 곳에서 '발아'한 고전의 파릇파릇함

토막소리 시리즈 속 '등장인물의 새로운 서사 만들기' 작업을 통해 입과 손은 하나의 이야기 위에 다양한 세계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발견이 향후 전통 판소리(오바탕)가 동시대성을 획득하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예로, 현재까지는 <춘향가>가 여성의 절개와 기다림을 통한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불리지만, 같은 이야기에 향단 이와 월매의 서사를 추가하면, 기존의 이야기에 새로운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고전에 존재하는 주변 인물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관점 개발은 '기존의 서사를 낫설게 비추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낯선 지점에서 새로 발아한 메시지들은 동시대를 사는 이들에게 보다 큰 설득력과 공감대를 불러올 것이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춘향의 절개보다 향단의 꿈, 심청의 효보다는 심학규(심봉사)의 삶, 흥보와 놀보의 심보보다는 그 부인네들의 고단한 형편을 더 들여다보고 싶게 마련이니 말이다.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이야기에는 언제나 씹고 또 씹어도 단물이 나는 '인물들'이 있다. 판소리는 그런 인물들의 세계가 깊어짐에 따라 더욱 판소리다워진다. 지난 3년의 레미제라블 대장정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배움을 얻었다.

그리고 2023년, 대한민국의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담아낸 조그만 판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한국판 레미제라블'을 세상에 내놓는다. 실패한 혁명에 절망하거나, 신의 구원을 기다리거나, 너무 오래 슬퍼하기보다는 하루 하루 스스로를 구원하고, 낫설지만 새로운 희망이 있는 세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어쩌면 그것은 이 이야기가 조금씩은 불쌍한 이 시대의 우리들을 그리로 데려가 주길 바라는 마음이 녹아 있을지도 모르겠다.

제작 연보

판소리 레미제라블 토막소리시리즈 1 <광틴>

- 2020.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따따지온라인극장
- 2020. 10 서울문화재단 후원, 신촌문화발전소 소극장

판소리 레미제라블 토막소리시리즈 2 <마리우스>

- 2021.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장기창작지원, 따따지온라인극장

판소리 레미제라블 토막소리시리즈 3 <가브로슈>

- 2021.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장기창작지원, 신촌문화발전소 소극장
- 2021. 8 서대문독립축제 초청 공연, 신촌문화발전소 소극장
- 2021. 9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및 K-Vox 초청공연

<판소리 레미제라블 - 구구선 사람들>

- 2022. 3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 2022. 7 판놀음 초청 공연
- 2022. 8 대전연정국악원 우리소리축제 하하하 초청 공연
- 2022. 6 제 10회 한국소리페스티벌(Festival K-Vox a Paris) 초청 공연, 주벨기에 한국문화원

Part 2.
소리꾼,
빅토르 위고를 만나다



빅토르 위고와 함께한 3년의 시간들

2019. 7. 19 토막소리 시리즈 결의

영등포 청과시장 옆 조그만 지하 작업실에 둘러앉아 '토막소리를 이어 붙이면 어떤 형태의 완창 판소리가 탄생할까?' 하는 논의를 하게 됨. 생각보다 재밌을 것 같아서 '현실로 만들자!'하며 무모한 결의를 함.

2019. 9. 27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에 선정. 무모한 결의가 무한 도전의 시작이 됨!

2019. 10. 14 벽돌책 단체 주문. 세기의 소설 '레미제라블'을 토막 내자!

원작의 조건 1) 유명할 것 2) 길 것 3) 등장인물이 많을 것 4) 고전일 것 이런 거 있으면 금상첨화! 말 떨어지기 무섭게 '장발장!' 한 마디에 만장일치로 원작 소설 단체 주문. 이뻐 몰랐다. 책이 아니라 벽돌이 옮겨란 걸...

2020. 1. 27 탈꾼 박인선과의 첫 만남!

첫 번째 토막소리의 이야기를 '팡틴'으로 정하고 탈춤과의 협업을 위해 탈꾼 박인선을 만나던 날. 묘한 긴장과 설렘의 기운!

2020. 3. 14 '탈' 없는 탈꾼

탈꾼이 탈 대신 있는 그대로의 표정을 보여주는 건 어때? 그게 '팡틴'이잖아. 돌아보면, 쉬운 결정은 하나도 하나도 없었다. 장장 4시간 회의.

2020. 3. 23 첫 번째 토막소리 <팡틴> 포스터 촬영

합정동 스튜디오에서 인선이와 입과손의 첫 번째 사진 촬영

2020. 3. 31 탈 만들기

탈 작업자 이지형 작가의 작업실에서 종이죽을 만들고 밀가루 풀을 섞어 공연 때 사용할 '유충 가면'을 만들었다. 모두 똥손인 가운데 유피디와 이승희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기억...

2020. 4. 5 전세계를 뒤덮은 '코로나 19', 우리는 이대로 멈출 것인가?

첫 번째 토막소리 시리즈 발표를 앞두고 전세계를 뒤덮은 팬데믹.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던 선택지는 대략 두가지! 공연을 취소 or 온라인 생중계.

새로운 대안을 찾던 중에 '따따지온라인극장' 개설 결정!

'온라인 상에 극장을 만든다면?' 밤이 새도록 작업실 난로에 모여 앉아 머리를 맞대고 온라인 극장 구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그날.

2020. 4. 21 온라인 극장 버전 <팡틴> 촬영

문래동 스튜디오에 무대를 짓고, 조명을 치고, 음향을 준비한 후 카메라 스탠바이! 상상이 하나씩 현실로 되어 가는 모습에 조금 울컥.

2020. 5. 5 - 8 토막소리 시리즈 1 <팡틴> 개막!

따따지 온라인 극장 첫 상연! 각자의 공간에서 모니터로 만난 우리의 공연이 참으로 생경했다. 우리가 우리 공연의 관객이 되는 날이 오다니.

2020. 10. 23 - 24 토막소리 시리즈 1 <팡틴> 오프라인 초연

품이 넓은 신촌문화발전소와의 만남! 거리두기 좌석으로 한 회 20명 남짓한 객석을 오픈했지만, 오랜만의 공연이 너무 소중한해서 몇 년 만에 일기를 씀.

2020. 12. 27 두 번째 토막소리 작업자 '상자루'와의 첫 만남

입과손 6 : 상자루 3의 만남인데 젊음에서 약간 밀림.
작업에서 승부를 보자!

2021. 1. 4 개미굴 청년들의 첫 번째 곡 '신고산 타령' 탄생

작업에서 승부를 보려 했던만, 상자루와 신승태가 30분만에 신곡을 들고 나타남. 새로운 사운드에 다들 물개 박수. 부러우면 지는 거다.

2021. 1. 7 혁명의 노래 '새 날은 바리케이드를 넘어온다네' 탄생

<구구선 사람들>에도 등장하는 혁명의 노래가 탄생한 날!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예즈'를 모티브로 음을 붙이고 코러스를 입혀 완성.

2021. 1. 9 두 번째 토막소리 <마리우스> 포스터 촬영

들어서자마자 '엔트홀이다!'라고 외친 권곤(효창)의 말처럼 어느 시대 젊은이들이 머물렀을 것만 같은 아현동 어느 스튜디오에서 상자루와 입과손 모두 들뜬 마음으로 사진 촬영!

2021. 1. 19 혁명 청년들 의상 구입

광장시장과 동묘, 홍대 빈티지 샵을 뒤져 개미굴 청년들의 의상을 완성! 입는 옷마다 찢쩍이던 신군과 상자루 조합의 개미굴 밴드.

2021. 1. 22 크로마키 촬영

두 번째 토막소리도 <팡틴>과 마찬가지로 ‘따따지 온라인 극장’에 올리기
로 결정한 이후, 보다 과감한 ‘온라인 버전’의 공연을 위해 크로마키 도전!

2021. 1. 23 온라인 극장 버전 토막소리 시리즈 2 <마리우스> 촬영

크로마키 촬영에 이어 본 촬영을 진행. 이야기 속 앵트홀을 옮겨놓은 듯한
공간에서 일사천리 촬영 진행!

2021. 1. 29-2. 7 토막소리 시리즈 2 <마리우스> 개막!

치킨에 족발 시켜 놓고, 입과손과 상자루가 모두 모여 작품 관람! 생각보다
웃음 포인트가 많아서 흐뭇했던 날. (관객들의 요청으로 당초 예정했던 기
간보다 일주일 연장 상연되었다.)

2021. 3. 2 세 번째 토막소리 작업자 인형작가 ‘이지형’ 첫 만남

팡틴의 ‘탈 작가’로 만났던 이지형 작가와 무대 위 사라지지 않는 존재이자
소리꾼의 오브제로 활용할 인형에 대한 작업을 이어나가고자 세 번째 작업
자로 섭외

2021. 3. 15 <가브로슈> 대본 완성!

전통 판소리에 가까우면서 원작과 먼 가브로슈 탄생! 열찬아, 안녕!

2021. 4. 3 열찬이 동생, 세바스찬 탄생

여러 가지 시도를 거쳐 의자와 채반, 낡은 천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인형
‘세바스찬’이 완성되었다.

2021. 4. 30-5. 1 토막소리 시리즈 3 <가브로슈> 개막!

<팡틴>의 오프라인 초연 발표지인 신촌문화발전소에서의 공연. 신촌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손을 맞잡고 하느님, 부처님, 알라신, 관객분,
소장님 등등등께 감사 기도를 함. ‘가브로슈도 오프라인 공연하게 해 주서
서 감사합니다.’

2021. 8. 19 - 21 <가브로슈> 서대문독립민주축제 초청

개화기 의병들의 이야기로 쓰여진 세 번째 토막소리 <가브로슈>, 서대문
독립민주축제의 메인 공연으로 초청

2021. 9. 30-10. 1 <가브로슈> 주프랑스 한국문화원과 K-vox 초청, 판소리의 발견(À la découverte du pansori)

공연 중간 중간 “수빠”, “트레비앙” 하고 추임새가 터져 나온 공연.
우리가 만든 판소리 레미제라블이 빅토르 위고의 고향 프랑스에서 공연되
다니! 신기하고 감사한 순간!

2021. 10. 2 빅토르 위고 생가 방문

: 모두 함께 파리 마레지구 보주광장에 위치한 빅토르 위고 생가를 방문.
생각보다 소박해서 놀람. 대문속 빅토르 위고의 수많은 흔적들에 숙연해졌
다가 골목길 옆 기념품 샵에서 흥분하는 바람에 급 허기 증상이 옴. (레스
토랑에서 같은 메뉴 두 번씩 시켜 먹은 날)



2021. 12. 21 <판소리 레미제라블 - 구구선 사람들> 초고 완성

장발장을 중심으로 토막소리 인물들을 하나로 연결한 우리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 완창형 <판소리 레미제라블 - 구구선 사람들>의 초고를 완성한 날.

2022. 2. 3 개미굴 밴드 첫 연습

기타리스트 홍갑과 드러머 유준, 그리고 입과손의 향하가 함께 그리는 개미굴 밴드의 첫 연습! 척 하면 척인 호흡에 인연을 믿게 됨.

2022. 2. 11 개미굴 밴드 <코드 파이브> 탄생

개미굴 밴드 최대 히트곡, 불쌍한 남자의 이야기 <코드 파이브>가 탄생한 날

2022. 2. 14 완창형 판소리 무대 디자인 확정

창단 이래 입과손의 긴 여정을 함께 한 남경식 무대디자이너와 벳머리를 상징하는 구구선 사람들의 공간을 만들어 냈다.

2022. 2. 24 All 코로나19 확진! 초유의 공연 연기

거세지는 코로나 19 오미크론을 피해갈 수 없었다. 프로덕션 전체가 (슈퍼항체 이항하만 빼고...) 부득이하게 공연 연기. 이불로 북을 감싸고, 격리 중인 방문 틈을 수건으로 막아 두고 각자 격리 연습에 매진함.

2022. 3. 10- 11 <판소리 레미제라블 - 구구선 사람들> 초연

격리 해제와 동시에 우여곡절 많은 완창형 <판소리 레미제라블 - 구구선 사람들> 초연

2022. 6. 16 <판소리 레미제라블 - 구구선 사람들> 초청, K-vox 10주년 주벨기에 유럽연합 한국문화원 협력

2021년에 이어 K-vox 파리한국소리축제에 초청되어 <판소리 레미제라블 - 구구선 사람들>을 프랑스와 벨기에 관객들에게 선보임. 코로나 이전보다 유럽 내 판소리 씬이 한층 깊어지고 있음을 느낌.

2022. 7. 12 두산아트센터 공동기획공모 선정

두산아트센터 공동기획공모에 선정. 종로로 간다!

2023. 2. 6 백군과의 첫 만남

2023 버전에 새롭게 합류한 백군(종승)과의 첫 번째 만남! 판소리와 연극, 소리꾼과 배우가 만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고민 시작.

2023. 3. 20 진짜최최최최최중_no43.

2023 ver 대본 수정이 계속 됨.

수정의견을 말하려고 손드는 사람이 미워지는 시점. 감독님들도 최종본이 도대체 뭐냐고 계속 연락이 옴.

2023. 4. 8 2023 <판소리 레미제라블 - 구구선 사람들> 개막

커밍쑤!

2023년 4월 대한민국, '지금'을 사는 소리꾼의 시선에서 다시 쓴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

세기의 소설이라 불리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처음 손에 들었을 때, 우리는 바로 알아 차렸다.
아뿔싸! 고난이 시작됐다.

‘뮤지컬도 되고, 영화도 되는데, 판소리는 왜 안되겠어?’ 하던 호기로운은 총 2,547페이지에 달하는 다섯 권의 책을 사던 날, 짜게 식어 버렸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나...?’

레미제라블이 전 세계를 통틀어 완독한 사람이 드문 작품이라는 사실을 안 건 우리가 이미 어렵게 책을 떼고 난 후였다. 겉론 억울했고, 속론 많이 설렸다. 작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성취가 생겼기 때문이다. 돌아보니, 완독만으로 이 작품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 조그만 자랑이 되어 있었다.

레미제라블을 읽고, 생각하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많이 성장했다. 무엇보다 ‘어느 하나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시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시간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 모두를 한 번에 품을 수 있는 말, 레미제라블! 그제서야 가급적이면 삶 저편으로 밀어 두고 싶었던 ‘불쌍’이라는 말의 품이 생각보다 넓고 무척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화나 뮤지컬을 통해 본 레미제라블은 방대한 메시지를 담은 원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그제서 알게 되었다. 우리는 줄곧 장발장이라는 신화적 인물에 감동하면서 타인의 처참한 삶에 안타까워하는 쪽에

서 있었다. 하나 레미제라블은 드라마가 아니라 논픽션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갖가지 이유로 불쌍해지는 모든 이들을 향해 빅토르 위고가 전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원작보다 더 많은 양의 해설서들을 읽었지만 이렇다할 해답은 찾지 못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안의 얘기들이 크게 와닿지 않았다고 해야 맞겠다.

‘혁명서’이자 ‘인간적 성서’라는 이 작품이 19세기를 살던 이들의 가슴 속에 분명 뜨겁고 생생한 무언가를 남겼다면, 그들은 우리와 다른 무엇을 발견하고 느낀 것일까. 우리는 그것이 궁금했다.

고심 끝에 19세기 프랑스라는 배경을 지우고 우리 식으로 이야기를 다시 쓰기로 결정했다. 그 때의 빅토르 위고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소리꾼의 입을 통해 ‘지금’을 사는 이들 앞에 ‘이 시대의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기로 했다. 영성한 사회망 안에서 쉽게 건져지지 않는 비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2023년 대한민국, 지금을 사는 이들의 모습에서 언뜻 언뜻 단서들이 보이는 것 같았다.

‘소리꾼의 언어로 다시 쓰기’ 작업은 무척 고됐지만 의미로운 시간이었다. 세상엔 여전히 ‘불쌍한 사람들’이 많았고, 원작에서처럼 더이상 무지하고, 무력하고, 무능하지만은 않아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수세기를 거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쓰기에 힘을 불어 넣어주었다.

견고한 듯 보여도 작은 균열에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이 세상과 세상이 향해 가고 있는 곳, 그 속의 우리에게 대해 얘기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 과정에서 원작 속에 숨어 있는 폭넓은 세대의 연대, 양심과 책임, 믿음의 중요성을 발견했다.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반드시 ‘연민이나 좌절 너머’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간의 모든 '불쌍'의 역사가 점차 한 곳으로 모이고 있음을 얘기해보고자 세월이 변해도 여전히 '레미제라블'의 굴레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딴 '부족한 세상, 구구선(99%의 배)'을 만들었다. 이제는 더이상 특정할 수 없이 모두가 불쌍한 시대, 우리는 모두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더 많은 이들과 함께 터놓고 얘기해보고 싶었다. 전쟁이나 혁명, 가난이나 역병같은 커다란 재난 속에서도 배 안의 모든 이들이 반드시 구해야만 하는 '삶'이 있다는 얘기도 들춰보고 싶었다. 그렇게 '꺾이지 않는 마음'들이 모여야만 결국 팔딱팔딱 뛰는 희망 하나를 배 위로 건져 올릴 수 있다는 믿음, 우리를 둘러싼 굴레가 모두 우스워지는 평온한 찰나에 대해서도 나눠보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불쌍한 사람 각각의 비참한 심정을 펼쳐 놓는 쪽보다는 불쌍한 사람 여럿의 무모한 줄다리기가 한바탕 소리판에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으려 한다.

구구선 사람들

MAIN THEME

Code 5

Yes, I am Code 5
(우--- 우--- 코드 파-이브)

나의 이름은 우우우우우 코드 파-이브!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절망을 느껴요!
아무나 내게 새 코드를 줘요!
(give me, give me, give me, give me, give me, give me)
아무나 내게 새 코드를 줘요!
(give me, give me, give me, give me, give me, give me)

우--- 우--- 코드 파-이브
우--- 우--- 코드 파-이브

나의 이름은 우우우우우 코드 파-이브!
감옥에 갇힌 나는 오늘도 눈물을 흘려요!
세상은 온통 창살 없는 감옥!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세상은 온통 창살 없는 감옥!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하느님 제게 뭘 하신 건가요?
이대로 사는 건 가혹해요
우--- 아--- 코---드 파-이브
우--- 아--- 코---드 파-이브

아무나 내게 새 코드를 줘요!
(give me, give me, give me, give me, give me, give me)
세상은 온통 창살 없는 감옥!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눈물 나는 내 코드 넘버 파이브

영혼의 양식

새 삶에 어울리는 이름부터 지어보자
성은 장이요, 이름은 영식이라

신께 바친 영혼 '영' 자에
주교님께 얻은 밤 '식' 자

영혼의 양식, 장영식이라. 씩씩하고 좋구나!
나는 이제 배부른 영혼 장영식이다!





거룩한 돛대

저 바다 끝에 육지가 있다
우뚝 솟은 하나의 돛대
육지는 우리의 새로운 고향
이 얼마나 설레는가
구구선- 노래하자 노래 부르자

오늘도 머리 위론 뜨거운 태양
찬란하게 빛나는 돛대
바다를 가르는 큰 배 구구선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구구선- 노를 젓자 저어 나가자

이 기상과 이 맘으로 나-라에 충성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빛나는 역사를 이룩하리
구구선- 영원하라 거룩한 돛대



새 날은 바리케이드를 넘어 온다네

친구여, 나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세상을 위해
오늘도 바리케이드를 쌓는다네!

누구나 세상을 향해 말할 수 있고
아무도 굶주리거나 견디지 않는 삶이 있는 곳
자유는 바리케이드를 넘어온다네!

친구여, 나는 지금껏 갖지 못한 세상을 위해
오늘도 바리케이드를 쌓는다네!

누구나 마음껏 꿈꿀 수 있고
아무도 비겁하거나 버려지지 않아도 되는 곳
평화는 바리케이드를 넘어온다네!
새 날은 바리케이드를 넘어온다네!

Part 3. 입과손스튜디오



입과손스튜디오(이하 '입과손')는 오랜 기간 판소리 창작 작업을 이어 온 소리꾼과 고수가 모인 공동창작집단이다. 입과손은 소리꾼의 '입'과 고수의 '손'을 뜻한다.

입과손은 판소리 연희 양식이 가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실험하며, 판소리의 예술적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확장 또는 변형하는 작업과 연구를 통해 '판소리 창작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판소리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려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판소리 창작'은 작품으로서의 결과물 뿐만 아니라 창작 과정 전반을 포함하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존 판소리 창작 방식에 갇히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작업 방식을 연구하고 기록해 나갈 것이다.

www.ipkoason.com

주요 연혁

2017년

- 1월 '입과손스튜디오' 창단
- 9월 <판소리동화시리즈_안테르센> 초연, 서강대 메리홀 소극장
- 12월 <Stage Pansori>, 폴란드 아시아음악페스티벌 초청, TRTheater

2018년

- 1월 <완창판소리프로젝트1_동초제심청가> 초연,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 9월 <동초제 춘향가 - 몽중인>, '이승희' DAC Artist 선정
- 12월 판소리 단편소설 시리즈 <19호실로 가다> 초연, 수림아트센터

2019년

- 5~6월 정동극장 예술가의 작업실 <운영전>. <채봉감별곡> 발표
- 7월 ACC 기획/제작 <Story in Asia> 창작 초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2
- 9월 <몽중인_나는 춘향이 아니라> 창작워크숍, 두산아트센터 Space 111

2020년

- 1월 <완창판소리프로젝트2_강산제수궁가> 초연,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3월 <다시 봄>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협업
- 5월 토막소리 시리즈 1 <팡틴> 초연, 20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선정, 따따지온라인극장
- 7월 <완창판소리프로젝트1_동초제심청가>, 영등포아트홀, 따따지온라인극장

2021년

- 1월 토막소리 시리즈 2 <마리우스> 초연, 따따지온라인극장
- 2월 프랑스 밴드 배씨방 x 입과손 두번째 싱글 '구나헤(Guna Hae)' 발표
- 4월 토막소리 시리즈 3 <가브로슈> 초연, 신촌문화발전소 소극장
- 7월 <두 개의 눈> 무토x입과손스튜디오, 2021 여우락페스티벌
- 11월 전라북도립국악원 창극 <달의 전쟁 말의 무사 이성계> 작/연출
- 11월 '배씨방x입과손' 홍대 클럽 투어(스트레인지 프릇, 제비다방, 채널1969, 벨로주)

2022년

- 2월 '배씨방X입과손' <강강술래> 싱글 발표(프랑스 현지)
- 3월 <판소리 레미제라블 - 구구선 사람들> 초연,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 6월 <판소리 레미제라블 - 구구선 사람들> 제 10회 한국소리페스티벌(Festival K-Vox a Paris) 초청 공연, 주벨기에 한국문화원
- 10월 멕시코 세르반티노 축제 초청

<완창판소리프로젝트 1_동초제 심청가>

이 시대를 사는 소리꾼과 고수의 시선으로 새롭게 구성된 극장형 ‘완창 판소리’. 전통 판소리의 소리와 고법이 가진 큰 틀은 유지하되, 형식은 다양하고 친근하게 제작한 작품이다. 한 명의 소리꾼과 세 명의 고수가 선보인 이 작품은 기존 전통 판소리의 공연 시간은 보다 짧게 줄이고, 음악과 무대 기술을 더하여 여운은 더 짙게 만들었다.

시놉시스

1부. "이름은 청이라고 지어주오."

아이를 낳고 7일이 되던 날, 현철하던 곱씨부인은 세상을 떠나고 심학규(심봉사)와 그의 딸 청이는 대책없이 둘만 남게 된다. 어렵게 동냥짓을 먹여 키워낸 아이 청이는 효성이 깊은 소녀로 자라나고, 심봉사는 흐릿한 마음으로 딸과 의지하며 하루하루 세월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심봉사가 우연한 길에 만난 중에게 공양미 삼백석을 약속하면서 이 부녀에게 뜻하지 않은 시련이 찾아온다.

2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졌던 심청의 깊은 효성이 용왕을 감동케하여, 청은 환생 후 황후가 된다. 좋은 옷과 갖은 시중에도 불구하고 청은 아버지를 그리느라 삼년을 꼬박 슬픔에 잠겨 사는데...

원작 동초제 심청가 | 작/연출/음악 입과손스튜디오 | 소리꾼 이승희 |
고수 이향하, 김홍식, 신승태 | 프로듀서 유현진 | 무대감독 김지명
무대디자인 남경식 | 조명디자인 이유진 | 음향디자인 장태순

<완창판소리프로젝트 2_강산제 수궁가>

전통 판소리 창작과정을 되짚어 보며 재창작된 입과손 스타일의 완창 판소리. 판소리뿐만 아니라, 연희와 민요가 결합돼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시놉시스

“용왕의 병에 백약이 무효하니, ‘토끼 간’을 구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남해 수궁 별주부, 토끼 간을 구하러 지상으로 떠나는디...

남해 용왕이 갑자기 병이 나 백약이 무효하여 탄식을 하고 있는 중, 도사가 나타나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고 일러준다. 용왕은 수궁 대신을 모아놓고 육지에 나갈 사자를 고르는데 서로 다투기만 할 뿐 약을 구하러 가겠다는 신하가 없다. 이때, 별주부 자라가 자원하고 다른 대안이 없는 용왕과 대신들은 토끼 화상과 함께 자라를 육지로 보낸다. 자라가 토끼를 만나 수궁에 가면 높은 벼슬을 준다고 유혹하자 이 말에 속은 토끼는 자라를 따라 용궁에 가게 된다.

간을 내놓으라는 용왕 앞에서 그제야 속은 것을 안 토끼는 피를 내어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한다. 이에 용왕은 토끼를 위한 잔치를 크게 열어준 후 다시 육지에 가서 간을 가져오라고 한다. 자라와 함께 육지에 이른 토끼는 자라의 어리석음을 조롱하면서 숲 속으로 도망가 버리는 데...

원작 강산제 수궁가 | 작/연출/음악 입과손스튜디오 | 소리꾼 김소진
고수 이향하, 김홍식, 신승태 | 연희 유희(임영호, 이동근, 성유경, 지경태, 안태원, 김광수) | 민요 조원석, 성슬기 | 프로듀서 유현진
무대감독 김지명 | 무대디자인 남경식 | 조명디자인 신동선 | 음향디자인 장태순



판소리 <19호실로 가다>

한 명의 소리꾼이 유일한 서사자로서 전지전능하게 이야기를 끌어가는 형태(판소리)거나, 여러 명의 소리꾼이 역할을 나눠 등장하는 형태(창극)가 아니라, 다수의 소리꾼이 극 안에서 모두 서사자로 존재하며 자유롭게 겹쳐지고 펼쳐지는 ‘따로 또 같이’의 형태를 구현해보고자 했다.

시놉시스

‘이것은 지성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이야기 속에는 지성인으로 표현되는 한 부부가 등장한다. 수전과 매슈 부부는 모든 것이 완벽해보이는 커플이다. 그들은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결혼생활을 한다. 허나 아이를 낳고, 남부럽잖은 생활을 영위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지성’에 발목을 붙잡히고 마는데. 번듯하게 안정을 이뤄가는 그들의 가정과 별개로 수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할 정도의 공허와 불안을 느낀다. 수전은 자신의 상태에 이상을 감지하지만, 불현 듯 자신의 일부가 된 불안을 애써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 지성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감정들이 수전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수전은 이런 자신의 상태를 가장 믿었던 남편 매슈에게 끝내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한다. 수전은 세상이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 사회적 기대를 이뤄갈수록 필연처럼 서서히 희미해져 가는 자신의 자유와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 여러모로 발버둥 친다. 그러다 결심을 하고 찾아간 ‘아무도 가지 않을 것 같은 낡은 호텔’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하는데...

원작 도리스 레싱 단편 『19호실로 가다』 | 각색/연출 입과손스튜디오
 소리꾼 이승희, 김소진 | 교수 이향하, 김홍식, 신승태 | 프로듀서 유현진
 무대감독 김지명 | 무대미술 남경식 | 조명디자이너 이유진 | 음향디자이너 장태순



<판소리 동화시리즈_안데르센>

'온 가족을 위한 판소리'를 꿈꾸며 만든 입과손의 첫 작품.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동화 두 편을 유니버스 형식으로 엮은 판소리. 20여가지의 악기(멜로디언,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국악 타악기, 양금, 아코디언 등)를 라이브로 연주하며, 다양한 볼 거리를 선사한다.

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옳아요

어느 노부부는 키우던 말을 더 필요한 물건으로 바꾸기로 결심한다. 말을 끌고 나간 영감은 지나가던 길에 암소를 끈 사람을 만난다. 여려모로 말보다 암소가 더 쓸모있다고 생각한 영감은 암소와 말을 바꾼다. ... 이렇게 시작해 여러 번 바꾼 물건은 썩은 사과가 된다. 한 영국인이 영감의 얘기를 듣고, 분명히 할멈에게 잔소리를 들을거라며 충고를 하는데, 영감은 되려 할멈이 “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옳아요!”라고 칭찬을 할 거라고 자신한다. 이 말에 영국인은 영감에게 금화 한 통짜리 내기를 거는데...

미운오리새끼

못생긴 외모때문에 형제와 부모, 지나가던 다른 동물들에게까지 무시를 받으며 여기 저기로 쫓겨다니던 새끼 오리는 자신의 외모를 자책하며 자신감을 잃던 중, 아름다운 백조의 무리를 발견한다. 하얗고 우아한 백조 무리에게 한 눈에 반한 못생긴 새끼 오리는 다시 놀림과 멸시를 받을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아름다운 백조 무리에게 자신의 마지막을 맡기기로 결심하고 힘껏 날아드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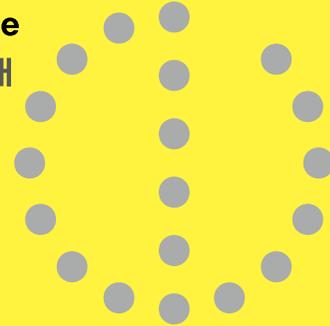
원작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미운오리새끼> <영감이하는 일은 언제나 옳아요> | 작/연출/음악 입과손스튜디오 | 소리꾼 이승희, 김소진
고수 이향하, 김홍식, 신승태 | 프로듀서 유현진 | 무대감독 김지명
무대디자인 남경식 | 조명디자인 이유진 | 음향디자인 장태순

두산인문극장 2023

Age, Age, Age 나이, 세대, 시대

제작
두산아트센터

기획
두산아트센터
이름



Contact

ipkoason@gmail.com

www.ipkoason.com

Facebook, Instagram, youtube @ipkoaso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47길 6, B1

B1F, 6, Yeongsin-ro 47-gil, Yeongdeungpo-gu,

Seoul, Republic of Korea

+82 70 8848 0124

+82 10 4303 0414 (유현진 PD)

—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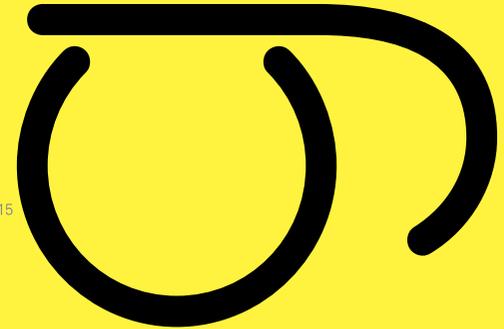
댄스 네이션 5.2-5.20

20세기 블루스 5.30-6.17

너의 왼손이 나의 왼손과

그의 왼손을 잡을 때 6.27-7.15

두산아트센터 Space111



— 전시

눈은 멀고 The Sunken Eyes Were Dim

4.19-5.20

두산갤러리

— 강연

4.3 나이와 자아 정체성 (엄정식)

4.10 가장 큰 걱정: 먹고 늙는 것의 과학 (류형돈)

4.17 인구변화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불균형: 전망과 대응 (이철희)

4.24 세대갈등과 세대 간 소통 (신진욱)

6.19 갓생살기를 위한 삶 디자인 전략 (정희원)

6.26 노인과 로봇 (신희선)

7.3 돌봄의 끝, 삶의 시작 (백영경)

7.10 적절한 삶: 균형잡힌 삶이

역량이 되는 시대 (김경일)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4.3-7.15

두산아트센터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본 프로그램북 본문은 을유문화사의 '을유1945' 서체를 사용했습니다.

